

남성복 컬렉션에 표현된 이미지 스타일 분석
- 2001년 S/S ~ 2010년 F/W 파리컬렉션을 중심으로 -

김현진 · 이은숙[†]

울산대학교 의류학과 석사
울산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The analysis of the image style expressed in men's fashion collection
- focusing on Paris' collection from 2001 S/S to 2010 F/W -

Hyun-Jin Kim · Eun-Suk Lee[†]

Master, Dept. of Clothing & Textiles, University of Ulsan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University of Ulsan[†]

(2018. 2. 5 접수; 2018. 2. 19 채택)

Abstract

In modern society, men are selecting dress based on physical features as well as individual taste. Through this concern with appearance, new descriptive words have appeared from time to time.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type of image style expressed in the Paris Men's Fashion Collection during the period of 2001 S/S collections~2010 F/W collections. This study used Frequency and Chi-square tests through SPSS 12.0 program for the analysis of a total of the 1,357 materials shown from nine designer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image style according to chronology and season by frequency and the tendency of design works by chi-square test, in the tendency of the image style by chronology, the style emphasizing a sexy and manly appearance is preferred through the tendency that Homme Fataleism has been continually released in foreign men's fashion collections for about ten years. In the tendency of the image style by season, the image style of the Homme Fataleism was highly published in SS and FW season except for SS in 2004 and 2008. In the tendency of design works by chronology and season, the H-silhouette was highly preferred for about a decade. In color, the light brown group was frequently used until 2008 while gray has mainly been of use since 2009.

Key Words: image style(이미지스타일), Dandyism(덴디즘), bisexual sportism(양성적 스포티즘), Homme fataleism(옴프파탈리즘), Machoism(마초리즘)

[†]Corresponding author ; Eun-Suk Lee
E-mail : eunsook@ulsan.ac.kr

I. 서론

21세기 현대사회는 개성과 다양성의 자유로운 표현과 사회적 성차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연 관되면서 성의 경계를 허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동아일보, 2017). 기존의 가부장제 사회는 개인 내부에 존재하는 양성성의 공존을 부정하였지만 현대사회는 그런 사회적 편견이 점차 붕괴 되면서 개인 내부에 잠재하는 또 다른 성의 표출 이 허용되기도 하고 결핍된 반쪽 성향을 충족시 킬 적절한 사회규범이나 역할을 찾는 현상이 나 타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이 자기내부의 양성성 표현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찾지 못할 경우, 자기 내부에 존재하는 다른 성과의 충돌과 갈등을 ‘외 모 꾸미기’라는 방법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한다 (주간동아, 2000). ‘외모 꾸미기’는 남녀들 사이에 이미 ‘일반화된’ 추세로, 다양한 외모 관련 신조어 를 등장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면 일반 중년층은 비현실적인 몸매를 통하여 자신의 존재 를 인정받아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염증 을 '대드 보드'(Dad Bod·Dad's Body의 줄인 말) 를 통하여 해소하고자 하였고 그와 더불어 '섹시 곱', '더티 섹시', '섹시 중년남'이란 신조어가 유행 되기도 하였다(조선일보, 2009). ‘예쁜 남자’, ‘꽃미 남’, ‘완소남’, ‘초식남’, ‘짐승남’, ‘꽃중남’ 등의 외모 신조어(주간동아, 2007)는 남성들로 하여금 외모 를 가꾸는 상품에 열광하게 하였고 여성용 화장품 매장에서 남성 고객의 증가는 그만큼 자신을 가꾸는 남자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조선일

보, 2009). 남성들도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성형수 술을 하고, 패션상품으로 자신만의 뚜렷한 개성을 표출하고, 연예인의 패션이나 액세서리를 따라하 는 외모 과시욕구가 강한 ‘거울왕자’ 신드롬(서울 경제, 2006)은 기존의 남성상에 대한 편견이 더 이상 사회적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 다. 성구분의 모호성은 기존의 강하고 거친 남성 이미지보다 ‘부드러운’, ‘섬세한’, ‘예쁜’ 등의 이미 지를 부각시켰다. 특히 새롭게 등장된 남성 외모 이미지는 남성패션의 여성화 경향을 유도하였고 외모 이미지 역시 디자인 테마로 도입되었다(어 패럴뉴스, 2009).

따라서 본 연구는 외모 이미지가 디자인 테마 로 도입되고 패션 작품에 반영되었다는 측면에서 남성패션의 이미지 스타일 변화추이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기간인 2001년 -2010년 동안은 양성성의 특징을 나타내는 신조 어의 등장(어패럴뉴스, 2009)이 있었던 시기로 남 성패션의 다양화 현상을 보이는 단계로 판단되어 남성패션에서 나타난 이미지 스타일을 살펴보고 자 한다. 본 연구목적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이현 지·박옥련;2006, 박혜란;2007, 김현아;2009, 김현 진;2010)은 남성패션의 여성화경향이 나타난 배경 과 표현방법을 중심으로 분석되었다. 이들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본 연구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이 다소 부족 한 점이 있어 2001년-2010년 동안 발표된 파리 남 성패션 컬렉션에 참가한 디자이너/브랜드를 중심 으로 이미지 스타일과 디자인 경향을 살펴보는 데

<표 1> 연대별 디자이너 작품발표 횟수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N
	SS	FW	SS	FW	SS	FW	SS	FW	SS	FW	SS	FW	SS	FW	SS	FW	SS	FW	SS	FW	
Armand Basi	●	●	×	●	●	●	●	●	●	●	●	●	●	●	●	●	●	●	×	×	17
Comme des Garçons	●	●	●	●	●	●	●	×	●	●	●	●	●	●	●	●	●	●	●	●	19
Dior Homme	●	●	●	●	●	●	●	●	●	●	●	●	●	●	●	●	●	●	●	●	20
Dries Van Noten	×	●	●	●	●	●	●	●	●	●	●	●	●	●	●	●	●	●	●	●	19
Hermes	●	●	●	●	●	●	●	●	●	●	●	●	●	●	●	●	●	●	●	●	20
Junya Watanabe	×	×	●	●	●	●	●	●	●	●	●	●	●	●	●	●	●	●	●	●	18
Louis Vuitton	●	●	●	●	●	●	●	●	●	●	●	●	●	●	●	●	●	●	●	●	20
Masatomo	×	●	●	●	●	●	●	●	●	●	●	●	●	●	●	●	●	●	●	×	18
Paul Smith	●	●	●	●	●	●	●	●	●	●	●	●	●	●	●	●	●	●	●	●	20

(●발표 × 미발표)

<표 2> 연대별·시즌별 디자이너의 작품 수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N
	SS	FW	SS	FW	SS	FW	SS	FW	SS	FW	SS	FW	SS	FW	SS	FW	SS	FW	SS	FW	
Armand Basi	15	6	·	9	7	7	3	5	3	3	5	4	6	7	17	4	12	7	·	·	120
Comme des Garçons	6	6	4	9	8	5	8	·	18	3	11	3	11	17	13	8	24	31	19	20	224
Dior Homme	7	15	5	6	8	7	5	6	5	20	13	18	17	3	3	14	8	6	4	3	173
Dries Van Noten	·	8	11	19	9	7	5	3	10	5	15	3	8	10	19	10	4	8	3	2	160
Hermes	2	3	2	0	1	5	6	1	2	4	2	1	2	3	4	3	6	17	8	8	80
Junya Watanabe	·	·	0	0	3	17	0	3	4	10	0	0	0	1	7	2	3	3	3	0	56
Louis Vuitton	2	1	1	0	2	0	3	1	11	7	7	3	6	7	5	2	7	8	7	3	83
Masatomo	·	4	7	4	6	6	6	3	4	10	8	10	10	11	9	11	17	20	18	·	164
Paul Smith	20	18	21	12	12	8	16	6	37	18	22	14	11	8	16	12	19	8	13	6	297
합계	52	61	51	59	56	62	52	28	94	80	83	56	71	67	93	66	100	108	75	42	1,357

연구목적을 둔다. 연구의 분석 틀인 남성 외모 이미지 스타일은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참고로 하여 여성적 이미지 스타일(모던하고 깔끔한 여성적 뎀디즘, 젊고 소녀 같은 앳된 양성적 스포티즘)과 전형적 남성 이미지 스타일(잘 다듬어진 몸매와 섹시한 움브라탈이즘, 야성적이고 긴장한 마초이즘)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2001년 SS부터 2010년 FW까지 파리 남성복 컬렉션에 발표된 작품을 대상으로 10년 동안 총 20회 개최된 컬렉션 중 15회 이상 참가한 Armand Basi(알만 바시), Comme des Garçons(폼데 가르송), Dior Homme(디올 움브), (Dries Van Noten(드리스반 노트), Hermes(에르메스), Junya Watanabe(준야 와타나베), Louis Vuitton(루이비통), Masatomo(마사토모), Paul Smith(폴 스미스)의 작품들을 선정하였다. 이 기간 동안 파리 컬렉션에 참가한 디자이너/브랜드의 참가횟수<표 1> 및 작품발표 수<표 2>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패션 전문 사이트인 퍼스트뷰 코리아(www.firstviewkorea.com)와 퍼스트뷰(www.firstview.com), 스타일닷컴(www.style.co.kr)을 통하여 선정된 디자이너/브랜드의 작품 중에서 4유형의 이미지 스타일을 반영한 3,209장 작품 사진을 수집하였다. 다음으로 3209장 중 4유형을 보다 명료하게 설명하는 1,357장을 선별한 후 10일 간격으로 6회에 걸친 종단적 조사를 실시하여 4유형의 이미지로 분류하였다. 4유형에 해당되는 작품 사진들은 무작위 추출에 의해 유형별 4장씩(총 16장)이 선정되었다. 최종적으로 의류학 전공자 4

인에게 타당성을 검증받았고 의류학 전공 학생 15명으로부터 타당성을 검증받은 총 16장 작품 사진과 이미지 스타일의 일치도를 측정하였다. 일치도 측정은 4유형의 작품 사진에 대해 ‘매우 일치한다’에 5점,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에 1점을 주어 5점 Likert척도로 측정하였다.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신뢰도는 .745로 나타났으며 이를 토대로 작품들을 기준으로 최종 1,357장이 선정되었다 <표 2>. 디자인 경향의 분석기준은 실루엣, 색채, 소재로 정하였다. 실루엣은 H, I, X, Y의 실루엣으로, 색채는 멘셀의 20색상환을 토대로 유채색은 난색, 한색, 중성색으로, 무채색은 흰색, 회색, 검정색으로 기타로는 실버와 골드를 추가 하였다. 소재는 문양과 재질감으로 한정하였다. 연대별·시즌별 이미지 스타일의 변화경향 및 디자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 및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본 연구의 주제에 따른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현대남성의 이미지 스타일 특징

21세기는 루키즘(lookism) 시대라고 할 만큼 외모지상주의 시대이다. 남녀를 불문하고 개인의 능력이 외모로 평가될 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과거 전통적 사회에서는 사회적 경제력의 극대화를 위해 세워진 가부장적 제도는 남성의 강인함과 힘의 논리를 강조하는 남성성에 더 우월한 가치

를 부여하는 위계적 이원론에 기반을 둬으로써 외모에 대한 관심은 여성의 몫으로 돌렸다. 그러나 21세기 사회는 개인의 주체적 존재가 중요시 되고 개인 간 우열과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잣대로 외모가 부각되면서 외모지상주의가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외모는 자기개념과 자신을 대표하는 의미로서 외모는 곧 남성들의 능력과 직결되고 있고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하다. 이러한 현상들은 외모관련 신조어로 대변되고 있다. 외형적 아름다움이 남성의 사회적 성공이나 여성에게 어필을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면서 외모에 신경을 쓰는 남성들의 증가는 젠더에 의한 강한 남성적 이미지, 부드러운, 귀엽고 예쁜 여성적 이미지, 섹시한 이미지 등과 관련된 신조어들을 탄생시키고 있다. 예쁜 남자, 꽃미남, 완소남, 초식남, 짐승남 등의 외모와 관련된 신조어, 움프파탈이즘, 댄디즘, 워버섹슈얼, 메트로섹슈얼 루키족 등의 생활패턴과 소비패턴이 어울려진 외모 신조어들은 그만큼 남성들의 외모에 대한 관심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남성들의 외모 신조어가 하나의 사회적 트렌드로 등장되면서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이현지, 박옥련(2006)의 성역할 정체감과 국내 남성패션의 여성화 경향요인의 관계 연구, 박혜란(2007)의 20~30대 남성의 외모 관리 유형화와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김현아(2009)의 21세기 남성패션에 이미지 연구들이 있으며 이들은 남성복의 여성화 경향 표현법과 관련된 연구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밝힌 변인들을 참고로 하여 남성외모와 관련된 신조어들 중에서 여성적 이미지 스타일과 관련된 신조어와 성역할에 따라 추구되는 남성적 이미지 스타일로 유형화하였다. 여성적 이미지 스타일은 깔끔하고 모던한 여성적 이미지로서의 댄디즘과 발랄하고 소녀 같은 예쁜 양성적 스포티즘으로, 남성적 이미지 스타일은 섹시하고 잘 가꾸어진 이미지의 움프파탈이즘 이미지와 남성적 야성미와 건장미가 혼합된 마초이즘 이미지로 분류되었다.

1) 댄디즘 이미지 스타일

댄디즘(Dandyism)에서의 댄디는 ‘멋쟁이’에서

나온 말로, 세련된 복장과 몸가짐으로 일반사람에 대한 정신적 우월을 은연중에 과시하는 태도를 말하며(네이버 백과사전, 2010), 몸치장과 의복 착용법에 있어서 최고의 우아함을 대표하는 남성을 일컫는다(김현아, 2009). 영국, 프랑스 상류층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사조인 댄디즘은 무게, 깊이를 고려하지 않고, 세련된 멋, 치장을 주로 고려함으로써 일반 계층의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태도, 사조를 나타내며(다음 사전, 2010), 몸치장과 우아함에 대한 무절제한 취미가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귀족적 우월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이다(김희균, 2006). 현재에 와서는 자질구레한 장식이나 과도한 격식 없는 멋을 낼 줄 아는 멋쟁이를 의미한 말이 ‘댄디즘’이 되었고, 요즘에는 남성들이 과거 잘 사용하지 않았던 여성 취향적 아이템인 스카프나 보우타이 등의 액세서리로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는 여성취향이 가미된 댄디즘으로 나타났다. 여성 취향적 댄디즘은 여성들의 부드럽고 자상한 남성을 선호하게 되면서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나온 아름다운 남성을 일컫는 신조어 꽃미남과 관련된다. 김현아(2009)는 현대 남성복에 나타난 댄디즘의 특징을 고급스러움을 지향하는 남성복의 유행으로 럭셔리 하면서도 부드러운 세련되기까지 한 귀족적 이미지의 댄디한 남성을 반영하는 조형성으로 고찰하였고, 그 결과 실루엣 경우, 좁아진 어깨선의 몸에 맞게 재단된 재킷과 몸에 피트 되는 팬츠로 슬림하며 잘록한 허리선을 강조하는 X실루엣 경향으로 곡선을 강조하며, 실크, 벨벳 등 부드러운 재질과 광택이 있는 고급스러운 소재가 사용되었다. 핀 스트라이프와 작은 체크 등의 문양들로 은은한 우아함을 표현하였으며 무채색을 기본으로 행커치프, 브로치, 띠, 리본, 보타이, 크라바트식의 스카프 등의 고급스러운 소품에 의한 댄디즘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깔끔한 이미지에 여성들의 전유물인 아이템들을 매치시킴으로써 여성적 이미지가 반영된 댄디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댄디즘 이미지 스타일은 모던하고 깔끔한 여성적 이미지를 지향하는 스타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양성적 스포티즘 이미지 스타일

양성적 스포티즘(Bisexual Sportism)은 ‘양성에

의, 양성성의, 남녀에게 다 끌리는'이란 뜻으로 남녀 경계 없는 건강한, 역동성, 젊음, 아름다움 등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는 여성과 남성간의 이분법적 구분이 점차 모호해지면서 상호 대립적으로 보였던 것들이 한데 뒤섞이는 현상이 두드러짐으로써 남녀를 구분하지 않는 바이섹슈얼(Bisexual)경향이 강하다. 21세기의 중요한 요소로서 '기능성'과 '실용성'으로 특징지어지는 양성적 스포티즘 이미지는 처음에는 스포츠 룩에서 출발하였으나, 스포츠영향으로 남성패션에 여성적인 요소가 도입되었고 이는 젊고 발랄한 소녀같은 이미지를 접목시킨 것을 특징으로 한다. 양성적 스포티즘 이미지 스타일은 2010년 S/S의 에르메스(Hermes), 라코스테(Lacoste), 알렉산더 왕(Alexander Wang), 푸치(Puch)등의 작품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그들은 스포츠 룩에 여성적인 요소를 첨가하여 우아한 스타일로 제시하였다. 김미영, 한명숙(2003)의 국내 패션에 나타난 스포티즘에 관한 연구에서 2000년 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게재된 국내 브랜드의 광고사진 및 국내 컬렉션사진, 브랜드 카다로그, 인터넷 자료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스포츠 웨어로부터 발생하여 현대패션의 메가트렌드로 자리 잡은 스포티즘은 미적 특성에 따라 과거에는 상반되고 이질적인 것들의 부조화로 어색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새로운 패션 트렌드로 제시되면서 여성스러움과 로맨틱한 요소가 남성적인 스포츠이미지와 결합되어 출현함으로써 탈 이분법적인 크로스오버의 조형성을 표현한다고 하였다. 박정수(2005)의 스포티즘에 의한 의상 디자인 연구에서는 2001년 S/S부터 2005년 F/W까지 해외 기성복에 나타난 스포티즘 패션 디자인의 사례에 관해 분석을 하였고, 분석결과 현대패션에 나타난 스포티즘은 스포츠웨어의 특징적인 디자인을 접목하거나, 기능적인 요소들을 모던하고 고급스럽게 표현하였으며, 트렌드나 시즌 경향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면서 단독적인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향들과 조합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김현아(2009)의 현대 남성복에 나타난 스포티즘의 특징을 건강함과 역동성, 젊음, 아름다움 등이 패션과 접목된 조형성으로 고찰하였고, 그 결과 실루엣의 경우, 전체적으로 슬림한 실루엣으로 얇고 소프트한 파카, 슬리브리스(sleeveless) 셔츠, 베스트 탑(vest-

top)등의 상의와 면, 저지, 데님 등 부드러우면서 가벼운 소재와 비닐 가공된 소재들이 나타났으며, 다양한색의 진과 짧은 길이의 반바지 등의 하의는 해체된 성의 이미지로 나타났으며, 선명한 색 배합을 이루는 스트라이프와 체크 문양 등으로 표현되었다. 색의 경우 비비드 톤 원색과 캔디컬러들을 통해 감미롭고 여성스러운 이미지로 나타났으며 액세서리는 부드럽고 가벼운 소재의 머플러와 스니커즈, 부츠 등의 신발을 통해 생동감 있고 발랄한 이미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양성적 스포티즘 이미지 스타일은 젊고 발랄함과 소녀같은 옛된 이미지가 혼합된 이미지를 지향하는 스타일로 정의하고자 한다.

3) 옴프파탈리즘 이미지 스타일

옴프파탈리즘(Homme Fataleism)은 옴프(homme)와 '치명적인'이라는 뜻을 가진 파탈(Fatale)의 복합어로 '치명적인 남자(deadly man)', '저항할 수 없는 매력으로 상대 여성을 유혹해 파멸시키는 부정적이고, 숙명적인 남자'라는 의미에 ism의 접미사가 붙어 형성된 단어로 옴프파탈을 나타내는 성향 등으로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다. 옴프파탈(Homme Fatale)은 여성에게만 허용되었던 치명적인 매력인 팜프파탈(Femme Fatale)의 반대개념(네이버 백과사전, 2017)으로, 치명적인 남성매력을 의미한다. 국내에서의 옴프파탈리즘은 야성미, 뛰어난 패션감각 등과 함께 신체적인 강인함과 근육질, 자신감 있는 눈빛, 과시성, 숙명, 매력 유혹, 고혹 등과 같은 단어들로 연상되며, 현재 21세기 남성들의 사회화된 성 정체성을 표현하기 보다는 자신의 내적 욕구의 표현단어로 이용되고 있다. 최라운(2008)의 남성 직장인 소비트렌드 성향에 따른 패션행동 연구에서 남성성이 강조된 섹시한 남성을 말하는 남성성 개념에 바탕을 둔 위버섹슈얼은 옴프파탈리즘 이미지 스타일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옴프파탈리즘 이미지 스타일은 잘 다듬어진 몸매와 섹시한 이미지를 지향하는 스타일로 정의하고자 한다.

4) 마초리즘 이미지 스타일

마초리즘(Machoism)에서의 마초는 스페인어

'machismo'에서 온 명사이며 '지나친 남자다움. 수컷답다. 사내답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마초이즘(Machoism)은 '여자보다 우수하다고 믿는 남자의 행위, 사내다움, 남성으로서의 의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고 생각하는 남성지상주의를 말한다(네이버 백과사전, 2017). 마초는 과거에는 여성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권위적이고 우람한 근육질의 강한 모습의 이미지로 표현되어 왔으나 21세기에서는 마초적 이미지는 여성들의 시선을 끄는 야성미와 건장미가 어울려진 강한 남성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다. 김현아(2009)는 현대 남성복에 나타난 마초이즘의 특징을 잘 가꾸어진 아름다운 몸을 노출을 통해 과시하며 보여 지기를 원하는 이미지의 조형성으로 고찰하였고, 그 결과 실루엣의 경우, 노출에 의해 직접적으로 신체를 드러내거나 밀착을 통해 간접적으로 신체의 윤곽선을 드러내는 미니멀 형태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마초이즘 이미지 스타일은 탄탄한 몸을 노출을 통해 남자다움을 과시하며 야성적이고 건장미가 혼합된 이미지를 지향하는 스타일로 정의하고자 한다.

III. 연구결과 및 논의

1. 연대별 4유형 이미지 스타일 경향

파리 남성복 컬렉션에 발표된 연대별 이미지 스타일 발표경향을 빈도수로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연대별 빈도수는 각 유형별 4장의 사진들(총 16장)을 기준으로 하여 1357장의 사진을 분류하여 얻어진 결과이다.

<표 3>에서 <그림 1>, <그림 2>는 2001년-2010

년 동안 가장 많이 발표된 스타일이다. 2004년(N=31)은 다른 년도에 비해 작품수가 적었으며, 2009년(N=130)은 다른 년도에 비해 가장 많은 작품이 발표되었다. 양성적 스포티즘 이미지 스타일<그림 3>, <그림 4>는 옴프파탈이즘 이미지 스타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발표된 스타일로 나타났다. 작품수가 적은 2002년(N=14), 작품을 많이 발표한 2005년(N=42)과 2008년(N=42)을 제외하고는 평균 28 작품이 발표되었다. 댄디즘 이미지 스타일<그림 5>, <그림 6>은 세 번째 발표순으로 나타났다. 2006년(N=41), 2009년(N=41), 2010년(N=29)은 양성적 스포티즘 이미지 스타일의 2006년(N=23), 2009년(N=28), 2010년(N=24)과 마초이즘 이미지 스타일의 2006년(N=12), 2009년(N=9), 2010년(N=5)와 비교했을 때 작품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마초이즘 이미지 스타일<그림 7>, <그림 8>은 전체적으로 작품수가 적었으며 특히 2008년 전후로 낮은 발표경향을 보임으로써 해외컬렉션에서는 선호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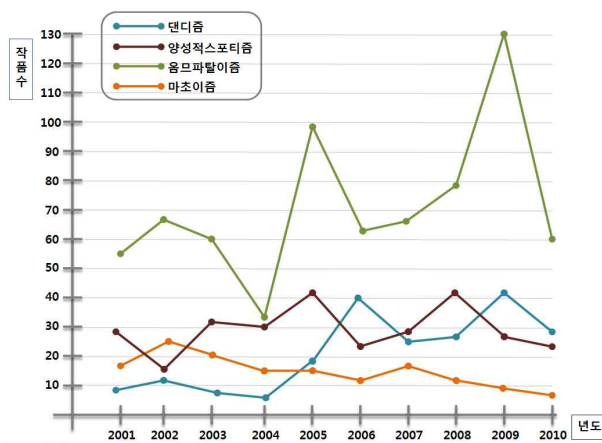
또한 연대별 이미지 스타일 경향을 비교한 <그림 9>에서, 2002년은 옴프파탈이즘, 댄디즘, 마초이즘의 이미지 스타일이 상승세일 때 양성적 스포티즘 이미지 스타일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3년은 옴프파탈이즘, 댄디즘, 마초이즘의 이미지 스타일이 하락세일 때 양성적 스포티즘 이미지 스타일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4년은 4유형의 이미지 스타일 모두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6년은 옴프파탈이즘, 양성적 스포티즘, 마초이즘의 이미지 스타일이 하락세일 때 댄디즘 이미지 스타일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7년은 2004년과 동일한 경향으로 댄디즘 이미지 스타일이 하락세일 때 나머지 3유형의 이미지 스타일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표 3> 연대별 이미지 스타일 발표 분석결과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N
Dandyism	9	11	7	5	18	41	26	27	41	29	214
Bisexual Sportism	28	14	31	30	42	23	28	42	28	24	290
Homme Fataleism	56	65	59	31	99	63	66	79	130	60	708
Machoism	16	24	21	14	15	12	18	11	9	5	145
N	109	114	118	80	174	139	138	159	208	118	1,357

Homme Fataleism		Bisexual Sportism	
			
<p><그림 1> Junya Watanabe, 2010 SS From paris 2010 SS http://blog.naver.com</p>	<p><그림 2> Paul Smith, 2010 FW From paris 2010 FW http://blog.naver.com</p>	<p><그림 3> Comme des Garçons, 2010 SS From paris 2010 SS http://blog.naver.com</p>	<p><그림 4> Dries Van Noten, 2008 SS From paris 2008 SS http://blog.naver.com</p>

Dandyism		Machoism	
			
<p><그림 5> Dries Van Noten, 2008 SS From paris 2008 SS http://blog.naver.com</p>	<p><그림 6> Masatomu, 2004 SS From paris 2004 SS http://blog.naver.com</p>	<p><그림 7> Paul Smith, 2009 SS from paris 2009 SS http://cafe.naver.com</p>	<p><그림 8> Dior Homme, 2010 SS From paris 2010 SS http://blog.naver.com</p>



<그림 9> 연대별 이미지 스타일 변화 경향

있다. 2009년은 옴프파탈이즘 이미지 스타일이 최고 상승세일 때 댄디즘 이미지 스타일 또한 상승세를 보였고, 나머지 두 유형은 하락세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시즌별 4유형 이미지 스타일 경향

남성복컬렉션에 나타난 시즌별 이미지 스타일 발표경향을 빈도수로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시즌별 빈도수는 각 유형별 4장의 사진들(총 16장)을 기준으로 하여 1357장의 사진을 분류하여 얻어진 결과이다.

<표 4>에서 옴프파탈이즘 이미지 스타일은 2004년 SS시즌(N=15), 2008년 SS시즌(N=33)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강세로 나타났으며, 2005년(N=45), 2006년(N=29), 2007년(N=32), 2010년(N=25)을 제외하고는 SS시즌에 비해 FW시즌에서는 높은 발표 경향을 보였다. 양성적 스포티즘 이미지 스타일은 2004년 SS시즌(N=22)과 2008년 SS시즌(N=34)에서는 옴프파탈이즘 이미지 스타일보다 높은 발표 경향으로 나타났고, 2002년(N=5)을 제외하고는 FW 시즌에 비해 SS시즌에서는 발표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댄디즘 이미지 스타일은 2003년(N=1), 2008년(N=12), 2010년(N=13)을 제외하고는 SS시즌보다는 FW시즌이 비교적 발표경향이 높았고, 마초이즘 이미지 스타일은 2001년 FW시즌(N=11), 2002년 SS시즌(N=18), 2007년 SS시즌(N=15)에서 옴프파탈이즘 이미지 스타일 다음으로 발표된 경향이었고 2001년(N=5), 2005년(N=5)을 제외하고는 FW시즌에 비해 SS시즌에서는 발표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시즌별 이미지 스타일 변화경향은 <그림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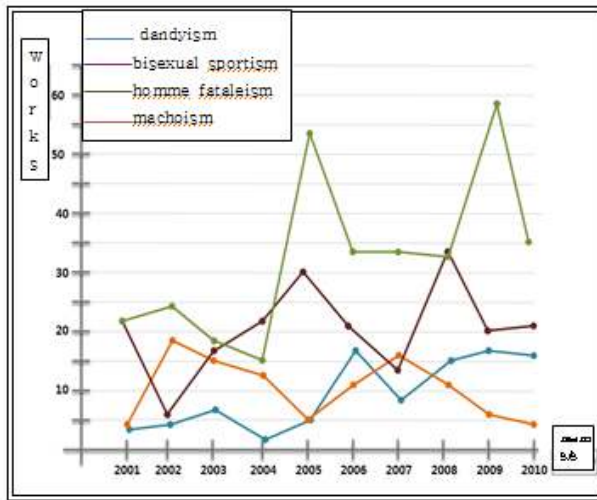
<그림 11>에서처럼, SS시즌<그림 10>의 경우 2002년은 옴프파탈이즘, 댄디즘, 마초이즘의 이미지 스타일이 상승세일 때 양성적 스포티즘 이미지 스타일은 하락세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옴프파탈이즘, 마초이즘의 이미지 스타일이 하락세일 때 댄디즘, 양성적 스포티즘의 이미지 스타일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5년은 마초이즘 이미지 스타일을 제외한 3유형 이미지 스타일은 상승세를 보였고, 2006년 옴프파탈이즘, 양성적 스포티즘 이미지 스타일이 하락세일 때 댄디즘 이미지 스타일은 최고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7년은 옴프파탈이즘, 마초이즘의 이미지 스타일이 하락세일 때 댄디즘, 양성적 스포티즘의 이미지 스타일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옴프파탈이즘 이미지 스타일이 최고로 상승한 2009년은 댄디즘 이미지 스타일도 함께 상승세로 나타났고 나머지 2유형 이미지 스타일은 하락 곡선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SS시즌은 양성적 스포티즘 이미지 스타일이 점점 상승세를 보인 반면, 3유형 이미지 스타일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SS시즌은 옴프파탈이즘, 마초이즘의 이미지 스타일은 같은 방향으로 변화한 반면, 댄디즘, 양성적 스포티즘의 이미지 스타일이 상승세를 나타내면 옴프파탈이즘, 마초이즘의 이미지 스타일은 하락세를, 댄디즘, 양성적 스포티즘의 이미지 스타일이 하락세를 나타내면 옴프파탈이즘, 마초이즘의 이미지 스타일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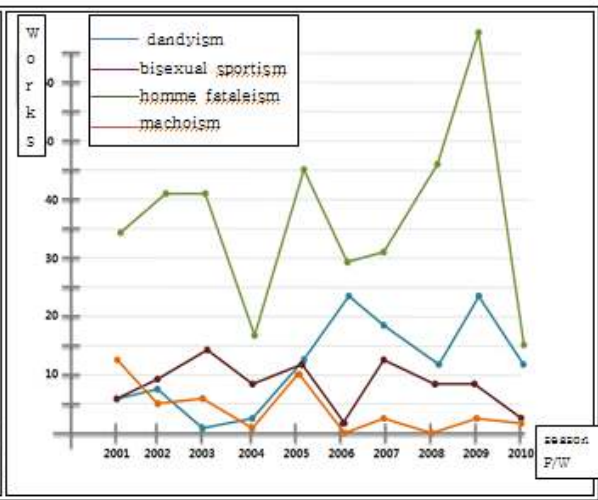
FW시즌<그림 11>에서는 2002년 마초이즘 이미지 스타일을 제외한 3유형 이미지 스타일은 모두

<표 4> 시즌별 이미지 스타일 유행 분석결과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N	
	SS	FW	SS	FW	SS	FW	SS	FW	SS	FW	SS	FW	SS	FW	SS	FW	SS	FW	SS	FW	SS	FW
Dandyism	3	6	4	7	6	1	2	3	5	13	17	24	8	18	15	12	17	24	16	13	93	121
Bisexual Sportism	22	6	5	9	17	14	22	8	30	12	21	2	14	14	34	8	20	8	21	3	206	84
Homme Fataleism	22	34	24	41	18	41	15	16	54	45	34	29	34	32	33	46	58	72	35	25	327	381
Machoism	5	11	18	6	15	6	13	1	5	10	10	2	15	3	11	0	6	3	4	1	102	43
N	52	57	51	63	56	62	52	28	94	80	82	57	71	67	93	66	101	107	76	42	728	629
	109	114	118	80	174	139	138	159	208	118	1,357											



<그림 10> SS시즌별 이미지 스타일 변화경향



<그림 11> FW시즌별 이미지 스타일 변화경향

상승세를, 2003년은 댄디즘 이미지 스타일만 하락세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움브라탈리즘 이미지 스타일이 최저를 보인 2004년은 댄디즘 이미지 스타일만 상승세를 보였고, 2005년은 4유형 이미지 스타일은 모두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6년은 댄디즘 이미지 스타일이 최고의 상승세로 나타났을 때 3유형 이미지 스타일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8년은 움브라탈리즘 이미지 스타일이 상승세를 나타낼 때 3유형의 이미지 스타일은 하락세를 보이다가 2009년에 3유형은 다시 상승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은 연대별과 동일한 경향, 즉 4유형 이미지 스타일이 모두 하락세로 보임과 동시에 움브라탈리즘 이미지 스타일은 상대적으로 더욱 하락하는 경향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FW시즌은 움브라탈리즘, 댄디즘의 이미지 스타일이 번갈아 가며 상승세 또는 하락세 경향을 보일 때 나머지 3유형 이미지 스타일은 반대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09년을 기점으로 4유형 이미지 스타일 모두 동일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3. 연대별·시즌별 디자인 발표경향

남성복컬렉션에 나타난 연대별·시즌별 디자인 발표경향은 교차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1) 실루엣

남성복컬렉션에 나타난 연대별·시즌별 실루엣 발표경향은 <표 5>로 요약된다. 연대별에선 $\chi^2=84.351$, $p<.001$, 시즌별은 $\chi^2=22.851$, $p<.001$ 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연대별·시즌별 실루엣 모두 H실루엣이 발표 빈도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연대별로 살펴보면 2001년(N=84, 6.2%)부터 2010년(N=85, 6.3%)동안 가장 대표되는 실루엣으로, 2009년(N=149, 11.0%)에 가장 많이 발표되었으며 2010년(N=85, 6.3%)은 다소 둔화된 경향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Y실루엣이 발표 빈도가 높음을 알 수 있으며, H실루엣이 높게 발표된 2005년, 2009년에는 Y실루엣도 가장 높은 발표 경향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남성복에서는 여성적 이미지를 표현하는 실루엣으로는 H실루엣이, 남성적 이미지를 표현하는 실루엣으로는 Y실루엣이 대표적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즌별 실루엣의 경우, 연대별과 비슷한 발표경향으로 나타났으며 SS시즌(N=519, 38.2%)과 FW시즌(N=443, 32.6%)의 발표 빈도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따라서 2001년-2010년, SS시즌, FW시즌 모두 H실루엣이 높은 발표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2010년은 다른 년도에 비해 낮은 발표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연대별·시즌별 실루엣 발표경향 분석결과

			실루엣				N
			H	I	X	Y	
연 대 별	01	빈도 기대빈도 전체(%)	84 77.3 (6.2%)	6 6.0 (.4%)	4 2.8 (.3%)	15 22.9 (1.1%)	109 (8.0%)
	02	빈도 기대빈도 전체(%)	92 80.0 (6.8%)	4 6.3 (.3%)	2 2.9 (.1%)	16 23.9 (1.2%)	114 (8.4%)
	03	빈도 기대빈도 전체(%)	90 83.7 (6.6%)	6 6.5 (.4%)	4 3.0 (.3%)	18 24.8 (1.3%)	118 (8.7%)
	04	빈도 기대빈도 전체(%)	67 56.7 (4.9%)	6 4.4 (.4%)	1 2.1 (.1%)	6 16.8 (.4%)	80 (5.9%)
	05	빈도 기대빈도 전체(%)	104 123.4 (7.7%)	12 9.6 (.9%)	0 4.5 (.0%)	58 36.5 (4.3%)	174 (12.8%)
	06	빈도 기대빈도 전체(%)	98 98.5 (7.2%)	13 7.7 (1.0%)	2 3.6 (.1%)	26 29.2 (1.9%)	139 (10.2%)
	07	빈도 기대빈도 전체(%)	101 97.8 (7.4%)	7 7.6 (.5%)	4 3.6 (.3%)	26 29.0 (1.9%)	138 (10.2%)
	08	빈도 기대빈도 전체(%)	92 112.7 (6.8%)	11 8.8 (.8%)	13 4.1 (1.0%)	43 33.4 (3.2%)	159 (11.7%)
	09	빈도 기대빈도 전체(%)	149 147.5 (11.0%)	10 11.5 (.7%)	2 5.4 (.1%)	47 43.7 (3.5%)	208 (15.3%)
	10	빈도 기대빈도 전체(%)	85 83.7 (6.3%)	0 6.5 (.0%)	3 3.0 (.2%)	30 24.8 (2.2%)	118 (8.7%)
N			962 (70.9%)	75 (5.5%)	35 (2.6%)	285 (21.0%)	1,357 (100%)
χ^2 값			84.351***				
시 즌 별	SS	frequency ex빈도 기대빈도 전체(%)	519 516.1 (38.2%)	34 40.2 (2.5%)	17 18.8 (1.3%)	158 152.9 (11.6%)	728 (53.6%)
	FW	빈도 기대빈도 전체(%)	443 445.9 (32.6%)	41 34.8 (3.0%)	18 16.2 (1.3%)	127 132.1 (9.4)	629 (46.4%)
N			962 (70.9%)	75 (5.5%)	35 (2.6%)	285 (21.0%)	1,357 (100%)
χ^2 값			22.851***				

p<.001

(2) 색채

남성복컬렉션에 나타난 연대별·시즌별 색채 발표경향을 교차분석으로 살펴본 결과<표 6>,<표 7>, 연대별은 $\chi^2=274.865$, $p<.001$, 시즌별은

$\chi^2=46.313$, $p<.001$ 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표 6>과 <표 7>에 의하면, 연대별·시즌별은 난색사용이 많았으며 2009년과 2010년에는 회색 사용이 다른 년도에 비해 두드러지게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연대별·시즌별 모두 회색, 검정색이 많이 나타났으며 2009년과

<표 6> 연대별 색채 발표경향 분석결과

		색채								N	
		유채색			무채색			기타			
		난색	한색	중성색	흰색	회색	검정색	골드	실버		
연 대 별	01	빈도 기대빈도 전체(%)	52 36.1 (3.8%)	16 13.3 (1.2%)	8 7.4 (.6%)	6 8.9 (.4%)	13 19.8 (1.0%)	13 21.0 (1.0%)	0 1.3 (.0%)	1 1.3 (.1%)	109 (8.0%)
	02	빈도 기대빈도 전체(%)	47 37.7 (3.5%)	14 13.9 (1.0%)	10 7.7 (.7%)	11 9.3 (.8%)	14 20.7 (1.0%)	17 22.0 (1.3%)	0 1.3 (.0%)	1 1.3 (.1%)	114 (8.4%)
	03	빈도 기대빈도 전체(%)	43 39.0 (3.2%)	20 14.3 (1.5%)	12 8.0 (.9%)	14 9.7 (1.0%)	14 21.4 (1.0%)	11 22.8 (.8%)	2 1.4 (.1%)	2 1.4 (.1%)	118 (8.7%)
	04	빈도 기대빈도 전체(%)	42 26.5 (3.1%)	9 9.7 (.7%)	6 5.4 (.4%)	4 6.5 (.3%)	5 14.5 (.4%)	13 15.4 (1.0%)	0 .9 (.0%)	1 .9 (.1%)	80 (5.9%)
	05	빈도 기대빈도 전체(%)	61 57.6 (4.5%)	26 21.2 (1.9%)	28 11.8 (2.1%)	11 14.2 (.8%)	20 31.5 (1.5%)	23 33.6 (1.7%)	4 2.1 (.3%)	1 2.1 (.1%)	174 (12.8%)
	06	frequency 빈도 기대빈도 전체(%)	45 46.0 (3.3%)	18 16.9 (1.3%)	5 9.4 (.4%)	23 11.4 (1.7%)	10 25.2 (.7%)	36 26.8 (2.7%)	1 1.6 (.1%)	1 1.6 (.1%)	139 (10.2%)
	07	빈도 기대빈도 전체(%)	41 45.7 (3.0%)	7 16.8 (.5%)	4 9.4 (.3%)	15 11.3 (1.1%)	26 25.0 (1.9%)	32 26.6 (2.4%)	5 1.6 (.4%)	8 1.6 (.6%)	138 (10.2%)
	08	빈도 기대빈도 전체(%)	52 52.6 (3.8%)	25 19.3 (1.8%)	10 10.8 (.7%)	12 13.0 (.9%)	26 28.8 (1.9%)	32 30.7 (2.4%)	1 1.9 (.1%)	1 1.9 (.1%)	159 (11.7%)
	09	frequency 빈도 기대빈도 전체(%)	38 68.8 (2.8%)	20 25.3 (1.5%)	6 14.1 (.4%)	13 17.0 (1.0%)	69 37.7 (5.1%)	59 40.2 (4.3%)	3 2.5 (.2%)	0 2.5 (.0%)	208 (15.3%)
	10	빈도 기대빈도 전체(%)	28 39.0 (2.1%)	10 14.3 (.7%)	3 8.0 (.2%)	2 9.7 (.1%)	49 21.4 (3.6%)	26 22.8 (1.9%)	0 1.4 (.0%)	0 1.4 (.0%)	118 (8.7%)
N			449 (33.1%)	165 (12.2%)	92 (6.8%)	111 (8.2%)	246 (18.1%)	262 (19.3%)	16 (1.2%)	16 (1.2%)	1,357 (100%)
x^2 값		274.865***									

p<.001

<표 7> 시즌별 색채 발표경향 분석결과

		색채								N	
		유채색			무채색			기타			
		난색	한색	중성색	흰색	회색	검정색	골드	실버		
시 즌 별	SS	빈도 기대빈도 전체(%)	233 240.9 (17.2%)	97 88.5 (7.1%)	54 49.4 (4.0%)	86 59.5 (6.3%)	127 132.0 (9.4%)	110 140.6 (8.1%)	9 8.6 (.7%)	12 8.6 (.9%)	728 (53.6%)
	FW	빈도 기대빈도 전체(%)	216 208.1 (15.9%)	68 76.5 (5.0%)	38 42.6 (2.8%)	25 51.5 (1.8%)	119 114.0 (8.8%)	152 121.4 (11.2%)	7 7.4 (.5%)	4 7.4 (.3%)	629 (46.4%)
N			449 (33.1%)	165 (12.2%)	92 (6.8%)	111 (8.2%)	246 (18.1%)	262 (19.3%)	16 (1.2%)	16 (1.2%)	1,357 (100%)
x^2 값		46.313***									

p<.001

2010년은 무채색 외에 다른 색채는 낮은 빈도를 보이고 있어 기존의 남성복 색상과 비교했을 때 색채상에서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남성복에서의 난색계열은 여성적이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회색은 깔끔하고 세시한 옴프파탈이즘 이미지 스타일을 표현하는 색상으로 이용 가능함을 알 수 있다.

(3) 소재

남성복컬렉션에 나타난 연대별·시즌별 소재 발표경향을 교차분석으로 살펴본 결과<표 8>, <표 9>, 연대별에서 문양은 $x^2=226.266$, $p<.001$, 재질감은 $x^2=97.199$, $p<.001$, 시즌별에서 문

<표 8> 연대별·시즌별 소재(문양) 발표경향 분석결과

			소재					N
			문양					
			기하학	추상화	무지(無地)	사실화	양식화	
연 대 별	01	빈도 기대빈도 전체(%)	28 26.2 (2.1%)	10 6.3 (.7%)	60 58.2 (4.4%)	1 4.0 (.1%)	10 14.3 (.7%)	109 (8.0%)
	02	빈도 기대빈도 전체(%)	14 27.4 (1.0%)	7 6.6 (.5%)	57 60.9 (4.2%)	16 4.2 (1.2%)	20 15.0 (1.5%)	114 (8.4%)
	03	빈도 기대빈도 전체(%)	31 28.3 (2.3%)	11 6.8 (.8%)	45 63.0 (3.3%)	12 4.3 (.9%)	19 15.5 (1.4%)	118 (8.7%)
	04	빈도 기대빈도 전체(%)	20 19.2 (1.5%)	5 4.6 (.4%)	39 42.7 (2.9%)	1 2.9 (.1%)	15 10.5 (1.1%)	80 (5.9%)
	05	빈도 기대빈도 전체(%)	56 41.8 (4.1%)	8 10.0 (.6%)	65 93.0 (4.8%)	2 6.4 (.1%)	43 22.8 (3.2%)	174 (12.8%)
	06	빈도 기대빈도 전체(%)	15 33.4 (1.1%)	14 8.0 (1.0%)	67 74.3 (4.9%)	4 5.1 (.3%)	39 18.2 (2.9%)	139 (10.2%)
	07	빈도 기대빈도 전체(%)	27 33.2 (2.0%)	8 7.9 (.6%)	81 73.7 (6.0%)	3 5.1 (.2%)	19 18.1 (1.4%)	138 (10.2%)
	08	빈도 기대빈도 전체(%)	53 38.2 (3.9%)	4 9.1 (.3%)	93 84.9 (6.9%)	0 5.9 (.0%)	9 20.9 (.7%)	159 (11.7%)
	09	빈도 기대빈도 전체(%)	46 50.0 (3.4%)	5 12.0 (.4%)	145 111.1 (10.7%)	8 7.7 (.6%)	4 27.3 (.3%)	208 (15.3%)
	10	빈도 기대빈도 전체(%)	36 28.3 (2.7%)	6 6.8 (.4%)	73 63.0 (5.4%)	3 4.3 (.2%)	0 15.5 (.0%)	118 (8.7%)
N			326 (24.0%)	78 (5.7%)	725 (53.4%)	50 (3.7%)	178 (13.1%)	1,357 (100%)
x^2 값			266.266***					
시 즌 별	SS	빈도 기대빈도 전체(%)	183 174.9 (13.5%)	50 41.8 (3.7%)	367 388.9 (27.0%)	19 26.8 (1.4%)	109 95.5 (8.0%)	728 (53.6%)
	FW	빈도 기대빈도 전체(%)	143 151.1 (10.5%)	28 36.2 (2.1%)	358 336.1 (26.4%)	31 23.2 (2.3%)	69 82.5 (5.1%)	629 (46.4%)
N			326 (24.0%)	78 (5.7%)	725 (53.4%)	50 (3.7%)	178 (13.1%)	1,357 (100%)
x^2 값			15.956***					

p<.001

<표 9> 연대별·시즌별 소재(재질감) 발표경향 분석결과

			소재				N
			재질감				
			뽀뽀한	부드러운	광택있는	투명한	
연 대 별	01	빈도 기대빈도 전체(%)	28 13.4 (2.1%)	62 64.7 (4.6%)	9 22.2 (.7%)	10 8.8 (.7%)	109 (8.0%)
	02	빈도 기대빈도 전체(%)	10 14.0 (.7%)	77 67.6 (5.7%)	18 23.2 (1.3%)	9 9.2 (.7%)	114 (8.4%)
	03	빈도 기대빈도 전체(%)	23 14.5 (1.7%)	71 70.0 (5.2%)	17 24.0 (1.3%)	7 9.5 (.5%)	118 (8.7%)
	04	빈도 기대빈도 전체(%)	7 9.8 (.5%)	58 47.5 (4.3%)	12 16.3 (.9%)	3 6.4 (.2%)	80 (5.9%)
	05	빈도 기대빈도 전체(%)	23 21.4 (1.7%)	120 103.2 (8.8%)	20 35.4 (1.5%)	11 14.0 (.8%)	174 (12.8%)
	06	빈도 기대빈도 전체(%)	16 17.1 (1.2%)	84 82.5 (6.2%)	25 28.3 (1.8%)	14 11.2 (1.0%)	139 (10.2%)
	07	빈도 기대빈도 전체(%)	12 17.0 (.9%)	68 81.9 (5.0%)	43 28.1 (3.2%)	15 11.1 (1.1%)	138 (10.2%)
	08	빈도 기대빈도 전체(%)	6 19.6 (.4%)	95 94.3 (7.0%)	45 32.3 (3.3%)	13 12.8 (1.0%)	159 (11.7%)
	09	빈도 기대빈도 전체(%)	27 25.6 (2.0%)	98 123.4 (7.2%)	62 42.3 (4.6%)	21 16.7 (1.5%)	208 (15.3%)
	10	빈도 기대빈도 전체(%)	15 14.5 (1.1%)	72 70.0 (5.3%)	25 24.0 (1.8%)	6 9.5 (.4%)	118 (8.7%)
N			167 (12.3%)	805 (59.3%)	276 (20.3%)	109 (8.0%)	1,357 (100%)
χ^2 값			97.199***				
시 즌 별	SS	빈도 기대빈도 전체(%)	50 89.6 (3.7%)	461 431.9 (34.0%)	129 148.1 (9.5%)	88 58.5 (6.5%)	728 (53.6%)
	FW	빈도 기대빈도 전체(%)	117 77.4 (8.6%)	344 373.1 (25.4%)	147 127.9 (10.8%)	21 50.5 (1.5%)	629 (46.4%)
N			167 (12.3%)	805 (59.3%)	276 (20.3%)	109 (8.0%)	1,357 (100%)
χ^2 값			79.443***				

p<.001

양은 $\chi^2=15.956$, $p<.001$, 재질감은 $\chi^2=79.433$, $p<.001$ 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연도별·시즌별에서는 무지(無地)에 부드러운 재질감의 재질들이 강세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하학 문양의 소재와 광택 있는 재질감이 발표되었으며, 두 번째로는 재질에서 기하학 문양이

많이 사용되었으나 2002년(N=14), 2006년(N=15)은 양식화 문양이 기하학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양식화에서 높은 사용을 보여주었고, 재질감에서는 2001년(N=9), 2003년(N=17), 2005년(N=20)을 제외하고 모두 광택 있는 소재가 높은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딱딱해 보일 수 있는 기하학적인 문양은 남성다운 이미지와 함께 여성성과 관련되는 부드러운 재질과 혼합된 경향을 보임으로써 성의 경계가 모호한 질충적인 이미지를 부각하는 경향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21세기는 연령, 성, 역할의 구분 경계와 영역이 파괴시대에 접어들어오면서, 남성들은 지금까지 금기시되어온 미에 대한 감정까지 진솔하게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외모와 관련된 이미지가 다양하게 나타났고 동시에 패션 스타일의 다양성이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남성 외모 이미지 스타일 경향을 토대로 2001 S/S-2010 F/W 파리 남성복컬렉션 작품에서 나타난 이미지 스타일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대별 이미지 스타일 경향에선 섹시한 남성적 외모를 강조하는 움프파탈이즘 이미지 스타일이 1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요구되어지는 보수적, 권위적, 수동적인 남성상이 아닌 남성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려는 능동적 욕구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움프파탈이즘 이미지 스타일은 지속적인 유행 트렌드임을 알 수 있었다. 반대로 미초이즘 이미지 스타일은 2008년을 전후로 2009년, 2010년에는 발표수가 낮은 경향을 보임으로써 해외 패션컬렉션에는 선호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시즌별 이미지 스타일 발표경향은 2004년 SS시즌, 2008년 SS시즌을 제외한 SS, FW시즌에서도 움프파탈이즘 이미지 스타일의 높은 발표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즉 SS시즌은 움프파탈이즘, 마초이즘의 이미지 스타일은 상승세 혹은 하락세 방향으로 함께 움직이는 경향을 보인 반면, 댄디즘, 양성적 스포티즘의 이미지 스타일은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09년 시즌에는 비슷한 상승세 또한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0년 SS시즌은 양성적 스포티즘 이미지 스타일이 상승세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FW 시즌은 움프파탈이즘과 댄디즘의 이미지 스타일

이 번갈아 가며 상승세 또는 하락세 경향을 보일 때 3유형 이미지 스타일은 반대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09년을 기점으로 4유형 이미지 스타일 모두 동일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연대별·시즌별 디자인 발표경향은 연대별에서는 전체적으로 H실루엣이 꾸준히 선호됨이 나타났고, 색채는 난색계열이 지속적으로 보이다가 2009년 이후로는 무채색계열 중 회색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소재에서는 무지(無地)가 기하학, 추상화, 사실화, 양식화 문양보다 조금 높게 발표된 경향과 함께 2006년 이후로는 높은 빈도를 보여주었다. 재질감은 연대별마다 부드러운 소재가 많이 나타났으나 2007년 이후로는 광택 나는 소재 또한 많이 사용되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시즌별에서 실루엣은 SS시즌, FW시즌 모두 H실루엣, Y실루엣, I실루엣, X실루엣 순으로, 색채는 SS시즌은 난색계열, 회색, 검정색 순으로, FW시즌은 난색계열, 검정색, 회색 순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소재에서 문양은 SS시즌은 무지(無地), 양식화, 기하학 순으로, FW시즌은 무지(無地), 기하학, 양식화 순으로, 재질감에서 SS시즌은 부드러운, 광택 있는, 투명한 재질감이, FW시즌은 부드러운, 광택 있는, 뽀뽀한 재질감 순으로 선호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 패션은 문화의 일부로서 사회 문화적 현상과 함께 변화하고 재구성되며 이에 따라 남성패션의 이미지 스타일이 영역화 변화에 의해 재정립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양성상과 남성상이 혼재된 패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외모 신조어와 관련지어 남성패션을 고찰함으로써 외모 신조어는 향후의 남성패션 변화를 예측하고 분석하는 변수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제시한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시각적 자료를 통한 내용분석으로 인하여 추측에 의한 내용분석이 제외된 점과 해외 남성복 컬렉션을 연구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아 편향된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결과로 해석할 경우 신중함이 고려되어야 한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해외 남성복 컬렉션과 국내 남성복 컬렉션 간의 비교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미영, 한명숙. (2003). 국내 패션에 나타난 스포티즘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학회지*, 11(5), 778-792.
- 김현아. (2009). *21세기 남성패션에 표현된 성이미지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진. (2010). *남성복컬렉션에 나타난 이미지스타일 분석 -2001 SS~2010 FW 파리 컬렉션을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균. (2006). *현대 남성 슈트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 -댄디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동아일보. (2017.03.14.). 남녀 경계 사라진 시대... '취향'따라 입는다. 자료검색일 2017.10.08, 자료출처 <http://news.donga.com/3/all/20170313/83301038/1>
- 박정수. (2005). *스포티즘에 의한 의상 디자인 연구. -"aura"브랜드 상품 개발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란. (2007). *20-30대 남성의 외모관리 유형화와 관련 변인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울경제. (2006.11.05.). “나는 예쁜 남자가 되고 싶어요” 자료검색일 2017.08.10., 자료출처 <http://www.sedaily.com/NewsView/1HLY4J59YL>
- 어패럴뉴스. (2009.08.17). 남성복에 ‘초식남’패션 뜨다. 자료검색일 2017.08.22., 자료출처 http://www.appnews.co.kr/main/pnews.php?table=paper_news&query=view&uid=51
- 이현지, 박옥련 (2006), 성역할정체감과 국내 남성 패션의 여성화경향 요인의 관계연구 -20~30대 여성의 관점에서-. *한국생활과학지*, 15(5), 775-78.
- 주간동아(217호). (2000.01.13.). 아름다운 남자? 강한 여자?. 자료검색일 2017.10.08, 자료출처 <http://weekly.donga.com/3/all/11/62369/1>
- 주간동아(609호). (2007.11.06.). 나만의 콤플렉스 감쪽같이 숨겨볼까. 자료검색일 2017.10.08., 자료출처 <http://weekly.donga.com/List/3/all/11/83712/1>
- 주간조선. (2016.06.20). 우리들의 일그러진 외모 집착증. 자료검색일 2017.09.16., 자료출처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1&nNewsNumb=002412100001>
- 조선일보. (2009.12.03.). 백화점, 올해 소비패턴은 'SUGAR'. 자료검색일 2017.09.16., 자료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2/03/2009120301019.html
- 조선일보. (2017.09.13.). 식스팩보다 사랑스러운 이 남자의 뱃살. 자료검색일 2017.09.16. 자료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3/2017091300142.html
- 최라운. (2008). *남성 직장인의 소비 트렌드 성향에 따른 패션행동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From Paris - 2010 FW Junya Watanabe. (2010). 자료검색일 2017.05.11., 자료출처 <http://blog.naver.com/sonicdope/20098793080>
- From Paris - 2010 FW Paul Smith. (2010). 자료검색일 2017.05.04., 자료출처 <http://blog.naver.com/sonicdope/20098935301>
- From Paris -2010 SS Comme des Garçons. (2010). <http://blog.naver.com/jboy23/150083159577>
- From Paris -2008 FW Dries Van Noten. (2008). 자료검색일 2017.05.04., 자료출처 <http://blog.naver.com/nesto/130026908494>
- From Paris -2008 FW Dries Van Noten. (2008). 자료검색일 2017.05.11., 자료출처 <http://blog.naver.com/nesto/130026908494>
- From Paris -2008 FW Dries Van Noten. (2008). 자료검색일 2017.05.10., 자료출처 <http://blog.naver.com/nesto/130026908413>
- From Paris -2004 SS Masatomo. (2004). 자료검색일 2017.05.05., 자료출처 <http://blog.naver.com/tkikiki/40016494855>
- From Paris -2009 SS Paul Smith. (2009). <http://cafe.naver.com/dsquared2love/254>
- From Paris -2010 SS Dior Homme. (2010). 자료검색일 2017.05.09., 자료출처 <http://blog.naver.com/shker/80072768143>